

---

2 0 2 4

---

# 성신여자대학교 구술 기록집

---

---

배달래 · 이미경 · 안수지

---

홍기자

---



© 2025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이 구술집의 저작권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술집의 내용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All rights reserved.

---

2 0 2 4

---

# 성신여자대학교 구술 기록집

---

배달래 · 이미경 · 안수지

---

홍기자

---

I. 동문 : 배달래, 이미경, 안수지  
(서양화과 89, 90, 91학번)

01 소개	10
02 서양화과 입학생	10
03 서양화과 재학시절 에피소드	16
04 수정대동제와 동아리 활동	25
05 기억에 남는 서양화과 교수님	27
06 성신서양화회	33
07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38

II. 동문 : 홍기자(미술교육과 67학번)

01 소개	44
02 성신여자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재학시절	44
03 미술교육과 실기실	56
04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강사 시절	57
05 성신난우회, 성신난원회	63
06 성신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65
07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67

일러두기

1. 이 책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진행한 '2024 성신여자대학교 구술기록 수집사업'의 구술채록 결과물을 정리하여 발간한 구술집이다.
2. 이 책의 구술기록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채록한 내용을 편집하여 실었다.
3. 구술자의 의견은 본 기관과 다를 수 있다.
4. 수록된 자료는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기록물이며, 제공받은 자료는 하단에 출처를 기재하였다.
5.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사용을 금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술 및 채록 정보

- 1) 인터뷰 일시 : 2024.09.11. (수) 14시 20분
- 2)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 성신별관 1층 직원휴게실
- 3) 구술자 : 배달래, 이미경, 안수지
- 4) 면담자 : 이보나(기록연구사), 안유진(학예연구사)
- 5) 촬영 : Worthstudio
- 6) 인터뷰 기록 : 이보나(기록연구사), 조희영(중앙박물관 트레이니)

## I. 동문 : 배달래, 이미경, 안수지(서양화과 89, 90, 91 학번)

01 소개	10
02 서양화과 입학생	10
03 서양화과 재학시절 에피소드	16
04 수정대동제와 동아리 활동	25
05 기억에 남는 서양화과 교수님	27
06 성신서양화회	33
07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38

약력

배달래	-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89학번 - 서양화가, 행위예술가
이미경	-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90학번 - 現 성신서양화회 회장 - 서양화가
안수지	-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91학번 - 서양화가, 디자이너

# 01

## 소개

**이보나** : 2024년 9월 11일 오후 2시 20분 성신여자대학교 성신별관 1층 직원 휴게실에서 배달래, 이미경, 안수지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성신여대 재학 시절 추억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수지** :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서양학과 91학번이고요, 졸업은 96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작가와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래** : 저는 89학번 서양학과 배달래라고 하구요, 지금은 93년 졸업하고 대학원을 95년도까지 바로 졸업하면서 지금은 서양화가 또 행위예술가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 안녕하세요, 저는 90학번 서양학과 이미경이고요, 작가로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성신서양학회 회장을 맡고 있어 지금 열심히 동문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 02

## 서양학과 입학생

**이보나** : 선생님들께 서양학과 시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미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입시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학력고사와 실기시험을 응시하는 과정부터 각 항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또한 실기시험에서 평가했던 과목들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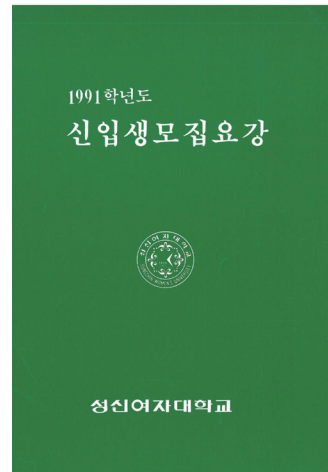
**이미경** : 저 때는 학력고사 시대라서 그때 시험 보고 그다음에 내신 들어가고, 실기는 석고데생, 저 때는 '줄리앙'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실기시험 들어가면 얼른 좋은 자리 맡으려고 했던. (웃음) 그리고 수채화 '정물' 시험을 봤고, 그래서 시험을 봤을 때 시간제한을 두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그 해 시험 볼 때 자리가 좋은데 잡아가지고 위치가 참 좋게 나와서, 그래서 합격한 것 같아요.

**배달래** : 저는 성신여대를 두 번 봤어요, 시험을, 미대를 그것도 서양화과를, 88년도에 서양화과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저는 서울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경남 마산에서 미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그때 화실 선생님이 수채화 화가였어요. 수채화 하면 그 일대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대학을 어디로 갈래?"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그때 사실 서양화, 동양화 구분도 별로 없어서, '서양화과로 수채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서양화과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그때 한 번 (시험을) 쳤을 때는 떨어지고, 내가 성신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때는 서울대, 홍대, 이대, 성신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림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홍대까지 갈 (실력이) 안되면, 성신은 여대로서 굉장히 급부상하는 미대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 내 목표는 성신이다.'라고 아예 목표를 정하고 나는 시험을 봤고, 그리고 떨어지고 난 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학교를 외봤잖아요, 근데 꼭대기 학교 미대를 들어가 시험을 보고 하는데 웬지 학교가 내 몸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추위, 굉장히 추웠어요, 학력고사 보고 실기 시험 볼 때도 제대로 된 난방도 없는 그 시절에 그렇게 하고, 다시 내가 웬지 느낌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성신을 와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애. 그래서 재수하고 다시 학교 왔을 때, 그때 했을 때가 10대 10이었어요, 경쟁률이. 근데 이제 됐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입학 순간부터 나는 성신이었고 지금까지 성신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수채화 아니면은 뭐 데생까지 했을 때 모든 기억들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수지** : 저도 역시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저하고 다음 해까지 아마 학력고사였을 거예요. 저 때는 '비너스'가 석고데생으로 나왔었고 다행히 성신여대를 붙으려고 그랬는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비너스였거든요. 제일 많이 그려봤었고, 그래서 '와 다행이다.' 그러면서 데생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도 우리 이미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저

는 사실 좋은 자리를 앉지는 못했고 저 뒷쪽에 앉았었는데 만약에 자리가 좋지 않으면 학원 선생님이 “기억으로 계속 그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 구도로 그렸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한 실기시험장에 40명이 한 클래스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실기시험을 쳤는데 그때 저희 때는 경쟁률이 8 대 1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때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예·체능계 실기고사 과목 및 배점

1. 미술대학

가. 공통 실기

학 과	실 기 과 목	화 지	시 간	배 점
동양화과 서양화과 조소과 공예과 산업미술과	소묘 (석고묘상) : 연필화 (비너스완, 줄리앙완, 아그 림파완, 아리아스, 카라칼라 중에서 출제)	48.5cm ×63cm	210분	97.15

나. 전공 실기

학 과	실 기 과 목	화 지	시 간	배 점
동양화과	채색화 (정물), 수채화 (정물) 중택 1	화 선 지 64.5cm ×65.5cm	210분	97.15
서양화과	수채화 (정물)	펜 트 지 39cm×54cm	240분	
조 소 과	조 소 (석고모각-완조) (비너스, 아그림파, 청년브루투스 볼테르 중에서 출제)	석고의 실제 크기		

6. 전형 방법  
가. 일반전형

구 분	학력고사 성 적	고교내신 성 적	실기고사 성 적	면접고사 성 적	교직적성 인성성적	총 점
인 문 계 (사범대학제외) 자 연 계	비율 70%	30%	·	·	·	100%
	점수 340.0	145.7	·	·	·	485.7
인 문 계 (사범대학전학과)	비율 60%	30%	·	5%	5%	100%
	점수 291.4	145.7	·	24.3	24.3	485.7
예 능 계 (미술대학전학과)	비율 30%	30%	40%	·	·	100%
	점수 145.7	145.7	194.3	·	·	485.7

대 학	계 열 구분	학 과	학과코드번호	입학정원	비 고
미 술 대 학	예 능 계	동 양 화 과	61	40	
		서 양 화 과	62	40	
		조 소 과	63	40	
		공 예 과	64	40	
		산 업 미 술 과	65	40	

▲ 「1991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배달래** : 아냐. 그 전에 가 더 세고 그 전에 우리 때, 88년도보다 89년도가 제일 피크였던 것 같아요.

**안유진** : 그럼 정원이 어느 정도?

**배달래** : 40명. 계속 40명 모집인데 굉장히 피 튀기게 싸우고 그랬죠. (웃음)

**안수지** : 그쵸. 그런데 그 반에 40명이 앉아있는데, ‘와 여기서 5명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깐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배달래** : 그런데 그때는 발표도 전화나 이렇게 아니었어. 학교로 와서 붙여 놓은 걸 봐야 ‘우리가 합격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방에 있는 날은 그걸 보기 위해서 서울로 와야 했어.

**이미경** : 근데 그다음에는 전화로 바뀌었어.

**안수지** : 저희 때는 전화를 하고 혹시 몰라서,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와서 봤죠.

**이미경** : 전화보다 붙이는 걸 먼저 붙였기 때문에. 제 기억엔 전화 발표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학교를 그냥, 데이트 삼아 학교나 가볼까 갔다가 먼저 보신 거예요. (웃음) 먼저 보고 합격 접수증을 우리 부모님이 내고 왔어.

**배달래** : 그걸 어디 붙여놓았는지知道吗? 우리 지금 본관(성신관) 있잖아요. 그 본관이 예전에는 나무 목조 건물이었어요. 들어가면 삐그덕거리는 마룻바닥이 너무나, 여고의 학교보다도 좀 약한 그런 듯한. 지금 이렇게 번듯한 건물로 새롭게 리모델링 됐지만. 그 앞에, 본관 건물 앞에 커다랗게 세워 가지고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과별로 써놨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보고 ‘역시 나 이제 대학생이 됐구나.’라는 그거는 내 인생의 큰 도전이었죠. 그

순간이. 그때는 그렇게 그런 아날로그가 더 낭만 있고 더 격하게 내 인생에 들어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보나**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한 점이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자리가 배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미경** : 그때도 배정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들어가면 번호표(수험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앉아 있으면 석고상이 나중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다 자리 앉으면. 거기서 좀 좋은 자리로 가려고 옆으로 좀 간다거나 뒤로 좀 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정도였죠. 아예 침부터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

**안유진** : 이젤에서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안수지** : 아, 지금은 이젤이 아닌가요?

**안유진** :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책상을 둔다든지, 미대마다 그 실기의 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이미경** : 그치, 한국화라던가. 디자인은 책상인데 우리는 이젤로 보니까.

**이보나** : 주로 실기시험은 어디에서 보셨어요?

**안수지** : 그때 저는 지금 미대 건물(조형 1관) 저 안쪽에 있는 그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미대 건물이 아니고 사범대 건물이었거든요.

**이보나** : 지금 학교의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조형 1관.

**안수지** : 지금은 그게 조형관으로 되어있는데. 그때는 그쪽이 조형관이 아니었고 사범대가 그쪽에 있었어요. 바꾼거죠.

**안유진** : 그럼 조형관(미술대학)은 어디 있었는지?

**안수지** : 지금 디자인과 건물(조형 2관)이 있는 데가 미대 건물이었고. 조소과랑 동양화과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건물(과학관)로 나뉘어 있었어요.

**배달래** :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그 운동장 옆에 다 베어지고 없는데, 플라타너스 길이 있었어요. 전혀 그 흔적이 없잖아. 운동장이 있으면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 가장자리 쪽에 굵은 나무 두 개로 길이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기숙사를 일부러 운동장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돌아서 이렇게 갔던, 거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길을)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학교 다닐 때 잘라버렸으니까 아마 후배들, 선생님들(안수지, 이미경 선생님) 학교 다녔을 때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나무 잘려 나갔을 때 진짜 나 너무 슬프더라고.

**이보나** : 앞서 답변해주신 것과 중복될 수 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배달래 선생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입학하기 전에 성신여대 미술대학에 대해 들으신 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 저는 원서 쓸 때 ‘조금 안정권으로 넣자.’ 했는데 숙대 아니면 성신 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작가로 활동하려면 성신을 가라. 숙대보다는 성신이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다. 여자 작가들이. 그래서 훨씬 더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하셔서 저희 때는 하나만 썼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막판 3학년 고3 때 성신 위주로 준비했죠.

**안수지** : 저도 비슷한데, 사실 서울권에서 회화과나 서양화과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았어요. 서울대, 홍대, 이대, 숙대, 성신여대 그리고 세종대 이렇게 있었는데 세종대학교는 그때 학교가 단체 유급을 당해서 입시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해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들어오는 91년도였는데, 서울대 홍대는 성적 때문에. 서울대는 아예 불가능했고 (웃음) 나머지 홍대는 좀 위험했고. 근데 이대보다는 (이미경 선생님이) 실기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와 작가로서 활동하기에는 성신이 훨씬 좋고, 만약에 선생님이나 교육 쪽으로 할 거면 그때 숙대가 교사 자격증인가요? 그게 나오는 시기였고, 근데 성신은 원래 사범대 시절부터 교사자격증이 있었는데, 저희 때부터 그게 없었어요.

**이미경** :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생실습이 후에 없어져서.

**안수지** : 저희 때부터 사범대 분들이 약간 (반대) 하셔가지고 없어졌고, 만약 교사나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대학원을 가야되는 상황이었던거예요. 저는 교사의 꿈은 없었고 작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성신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성신을 시험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보나** :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재학 시절 에피소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재학 당시 학과 학풍이 어떠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달래** : 저희 딱 입학했는데 얼마나 기대에 차서 “난 대학생이야.” 이라고 왔는데. 그때가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이 제일 극심할 때였고 89년도는 최고 치에서 조금 내려가는, 1학년인데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에서 계속 북을 치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 소리가 실기실로, 강의실로 다 들리다 보니까 그때 약간은 이제 좀... 뭔가 그전에는 그게(깊이 생각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제가 정치에나 아니면 어떤 역사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왜냐면 입시라는 것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3 때도 물론 그런 현장을 보기는 했어도 ‘대학생들이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정도만 가볍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대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하고 내 안의 어떤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1년을 정말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하면서도 늘 같이 “종로에서 모여라.” 그러면은 종로에서 가두시위를 같이 하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던 그 시기였어요. 굉장히 그때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제 작품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내내 다닐 때도 저항이 뭔지, 내가 왜 이 작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예술이 이런 저항적인 부분들이 왜 필요한가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그때 이제 저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물론 편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 것만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미경** :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입시 때는 그냥 암기해서 그리다시피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대학은 그걸 풀어헤치기 위한 작업으로 교수님이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풀어서 좀 그려라.” 이렇게 뭔가가 딱 정해져 있는 틀 말고 그거를 좀 풀어헤치는, “생각도 풀어헤치고 그림 스타일도 좀 풀어서 자유롭게 좀 그려라.”라는 걸로 많이 배우던. 특히 성신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풀려고 애를 썼는데 저도 너무 오랫동안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게 좀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거예요. 근데 선배님들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자유롭게 하시고 하면서 그런 걸 보고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강사 선생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때는, 열심히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도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 가르침이 굉장히 또 많이 영향도 받았고,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말 그대로 집, 학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교 오면서 조금 자유로워지니까 좀 그런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절? ‘나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의 자체라는 기본적인 틀(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랬던. 한참 대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풀어헤치고 내면을 꼬집어내고 이런 수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 03

### 서양화과 재학시절 에피소드

**배달래** :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로 너무 좋았던 부분은 교수님들. 일단 그 당시의 교수님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과거의 또 몇 년 전에 공부하셨던 그런 안주되고 편안한 작업들을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교육하셨다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실험적이고 더 열정이 넘치셨고,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은 것들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학생들보다 더 열정이 많았던 시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부하면서 또 데모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수업 시간 외의 시간도 저희들한테 할애하시려고 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강사를 끝낸 다음에 다른 학교 전임교수로 가서 퇴임까지 하신, 지금 얼마 전까지 다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너무 많아요.

**안수지** : 저는 91학번인데 사실 (배달래) 선배님 시기보다 몇 년 후여서 저희 때만 해도 학생운동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1학년 때 한 번 정도 무슨 데모를 한다고 해서 따라 나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통 그 전경들이 이만한 방패 들고 서 계시잖아요. 근데 전경분들이 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시더라고 요. 한 50대쯤 되는 분들이 '저건 뭐지?' 이렇게. 이쪽(전경들)에서도 뭔가 저기서도 막 이렇게 저지하는 그 힘이 세계 느껴져야 학생들 쪽에서도 좀 더 그런 (대항할 만한) 의지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딱 사그러들 만한 분들이 많아서 그 이후로는 그걸(데모를) 따라 나가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대규모 집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제 기억에 없는 건지 몰라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좋아서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였기 때문에 미대를 다니던 그 시기가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입시를 준비한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1년 반에서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입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이 미대는 허락을 안 하셔서 조르고 졸라서 이제 고2 2학기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입시미술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사실 보통 입시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입시화'라고 해야 되나요? 입시풍이 이렇게 다년간 하게 되면 손에 익어서 계속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 되는데, 1학년 딱 들어왔더니 교수님들께서 "손을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손 푸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좀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잘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깨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야 나의 어떤 작품관이 생기고 나의 철학이 생기는데,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그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게 1학년 때도 힘들었고 2학년 말 정도 되어서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그걸 깨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던 것 같아요.

**안유진** : 그럼 그것과 연계되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교수님들께서 손을 풀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셨던 수업의 방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추상화를 그려라.", "이론 강의로는 이런 것을 해라." 약간 이런 식의 기억에 남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안수지** : 저는 드로잉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일단 제가 수채화보다는 데생을 좀 더 잘했었고 그러다 보니 건식재료를 사용해서 그리는 그림을 더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 푸는 건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한 교수님께서 "감정을 담아서, 너의 감정을 손끝에 옮겨서 그려라." 이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게 안 돼서 수업 시간에 울 뻔했거든요. 막 이렇게 주저 주저하고 연필을 들고 (손을 뺀 시늬) 이라고 있으니, 하루는 도윤희 교수님이 드로잉 수업 담당을 하셨었는데 "아휴,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서 한 번은 직접 제 화판에 그려주셔서 그때 이후로 '아 이 감정과 나의 어떤 에너지를 연필 끝에 담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 이후로 드로잉 수업이 더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런 드로잉 기법을 지금도 계속 작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미경** : 드로잉할 때 인체를 모델로 두고 그리면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풀어서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있는 분을 역동적으로 선으로라던가 그런 수업 방식도 많이 했었고, 수업 시간이 좀 자유로웠어요. 출석 체크하고 나서 작업하다가 안 풀리면 내려가가지고 위에 꼭대기 층 디자인 건물이었잖아요. 거기 앞에 나무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거기 근처에 누워가지

고 바람 좀 쐬고 들어가고 (웃음) 이렇게 좀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그렇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을 좀 풀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배달래** : 작가가 작품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늘 자기 아이디어와 생각과 보는 어떤 영감을 받는 것을 순간순간 캐치해서 바로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게 드로잉이거든요? 우리가 4년 내내 한 게,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지도하신 게, 드로잉이었어요. 드로잉 수업이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성신 학생들이 굉장히 구상과 추상을 떠나서 ‘기본이 잘되어 있다.’ ‘(기본이) 튼튼하고 단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입시를 잘해서가 아니라 수업 4년 내내 드로잉 수업이 ‘드로잉 1, 2’ 이런 식으로 4학년 내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과제를 한 선생님 당 “5장씩 해와라.” 그러면 그게 사이즈도 전지 사이즈예요. 그러면은 그 과제를 해내는. 처음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뭐를 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술 한 잔, 소주 한 잔 먹고 그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웃음)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근데 그 수업 이후에 자율 시간에 작업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5장을, 전지 사이즈를 해내면서 매 학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드로잉(의 기초실력)이 튼튼해요, 단단하고. 그 시간에 유명하신 작가 선생님들이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크리틱(Critic)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작품 설명을 하고,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많이 깨지고 내가 어떤 거를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손을 풀어야 되는게 아니라 몸을 풀어야 되는 거죠. 내 영혼도 풀고 손도 풀고 모든 이런 것들이 풀어 헤쳐나가는 과정이 그 드로잉 수업에서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작업이 막히면 드로잉부터 다시 해요. 제가 최근에 (드로잉을) 제일 많이 했던 기간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2년은 정말 드로잉만 했던 것 같아요.

**이보나** : 드로잉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수업도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수지** : 많죠. 드로잉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은 ‘실험미술’ 혹은

‘재료와 표현 기법’ 그런 과목명으로 했던 수업인데 다양한 재료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탐구하고 연구하게 해주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이미경** : 권여현 선생님.

**안수지** : 아, 권여현 선생님! 저희 때는 권여현 선생님이.

**배달래** : 최진욱 선생님도 있었고.

**이미경** : 한만영 교수님도 있었고.

**안수지** : 권여현 선생님은 지금 홍익대학교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배달래** : 나는 실험미술 수업 때 우리 그 퍼포먼스를 했잖아? 나 생애 최초의 퍼포먼스는 3학년 때.(웃음)

**안수지** : 아~ 그때부터 그럼 시작을 하신거군요. (웃음)

**배달래** : 3학년 때. 학교 앞에서. 에피소드 얘기해도 돼요? 그때 과목 선생님이 윤동천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퍼포먼스를 하라고 이제 실험미술이니까. 70년대부터 해서 우리나라 실험 예술의 퍼포먼스,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지만 80, 90년대가 굉장히 피크일 때였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성능경 선생님, 이건용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작가님들이 지금 거의 글로벌 작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그게 없었어. 그냥 과목 중에 하나로 저희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친구 하나하고 조를 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를 했냐면, 학교 앞에서 진짜 이벤트였어요. 차가 있는 애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차를 (운전) 하다가 깝 서라. 그럼 내가 쓰러지겠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 (웃음) 딱 그랬는데, 우리 이제 같이 듣던 동기들은 옆에

다 깔려 있고 선생님도 거기 이제 서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운전하는 시늉을 하며) 개가 차를 갖고 오다가 막 덜덜 떨면서 세계 오지도 못하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깍 소리가 나고 내가 퍽 쓰러졌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침 119가 지나가고 있어서 (웃음) 그래서 저희가 진짜, (119대원들이) 와가지고 실으려고 하는거야. “아 죄송합니다. 저희 이거 수업의 일환이에요. 실험미술 수업이었어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서 일단락이 되고,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미경** : (고개를 끄덕이며) 퍼포먼스 수업이 있었구나.

**배달래** : 어, 있었어요.

**이미경** : 그래서 지금 유명한 퍼포먼스 작가님(이시잖아요.)

**안수지** : 다음주에 독일에 (퍼포먼스 하러) 가신다고.

**배달래** : 아휴, 그러니깐 그때. 재미라기보다는 ‘그걸 내가 왜 했지?’ (웃음)

**이미경, 안수지** : (웃음)

**안수지** : 오늘날 작가님이 있으려고. (웃음)

**이미경** : 저희는 사진으로 촬영하는 작품도 많이 했어요. 저 자신을 분장해서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배달래** : 신디 셔먼(Cindy Sherman).

**이미경**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분장을 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남(男)과 여(女)를. 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실험적인. 꼭 앉아서 유화를 하는 것이 아닌. 성

신이 유달리 그런 걸 많이 했던 시절이었어요. 강사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수지** : (인터뷰 전에) 보내주신 학보를 다 봤거든요. 거기에 그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남과 여’라는 주제로 성신여대 서양화과에서 실험미술 과제의 일환으로 전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40여 점. 20명의 학생이 40여 점 출품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경** : 그때 이벤트로는 <소품바자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도 했었고.

**배달래** : 그럼, 했었고. 과제전을 하면 작품들이 금방금방 팔려나갔어요.

**이미경**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분장을 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남(男)과 여(女)를. 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실험적인. 카페 같은 데서 (작품이) 걸리고 많이. 적극적으로 그런 장을 많이 열어줬던 시절이었던 거 같아요.

**서양화과**  
**실험미술 작품전**

서양화과는 지난 28일 수업 시간에 했던 「실험미술작품」을 사범대앞 민주광장에 전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 「실험미술작품」은 「가장 여성다운 나와 가장 남성다운 나」라는 제목아래 각개인이 남자와 여자로 분장하여 작품을 만들게 된 것으로 20명이 참여하여 약 40점을 만들고 전시했다.

▶ 「서양화과 실험미술 작품전, 『성신학보』 제304호, 1993.11.01.

**배달래** : 미대에서 뭘 한다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후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 우리 학교 다닐 때 분위기는.

**안수지** : 그리고 그 당시 이론 (강의) 해주시는 송미숙 교수님이 계셨는데 사

실 이론 수업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너무 알차고 재미있어서 그때 그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이미지나 이런 거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프린트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레포트를 낼 때 그걸 다 복사해가지고 그 레포트 용지에 그것을 복사해서 붙이고 글로 써서 레포트를 제출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웃음) 그것을 너무나 재미있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래서 이론 수업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리고 송미숙 교수님께서 학교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 교수님께 배운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달래** :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조금씩 소소하게 생각이 나는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 제가 성(性)에 대해서 작업 다루고 있었어요. 그게 원시에 대한 졸업 논문도 내 작품에 나타나는 것도 '원시성'에 대한 내용이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3학년, 4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대에서 그 당시에 성을 다룬다는 것은... 동양화와 선생님들까지 와서 다 구경하셨어. (웃음)

**안수지** : 뭘 그리셨길래? (웃음)

**배달래** : 노골적으로 그렸지. (웃음)

**안수지** : 애! (웃음)

**배달래** : 조금 노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애! 박복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 니 나이에 그럴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광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 해볼 만하다. 너의 순수성을 믿는다." 이러셨고. 다른 교수님들은 말을 아예 안 하셨는데. 강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차마 말을 못했던. 여대에서. 왜냐하면 자기도 굉장히 젊은 강사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나.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한만영 교수님이 한번 4학년 때 크리틱을. 그때는 정식 교수님 되기 직전이었는데. 애! 임명이 되시고 바로

한번 오셔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하셨을 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막 찾아가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웃음)

**이미경, 안수지** : (웃음)

**배달래** : 아니. 뭐라고 해야하지 않나. (웃음) 말이 없다는 것은 뭐... 그런 생각들이 소소하게 많이 나는. 재미있었던 생각들이.

## 04

### 수정대동제와 동아리 활동

**이보나** : 학생들의 주요 행사나 활동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유진** : 지금은 '수정대동제'라고 하는데 그때도 축제했을 때 주점 운영을 하셨나요?

**배달래, 이미경, 안수지** : (수정대동제) 있었어요. 맞아요.

**배달래** : 술 많이 팔았어요.

**이미경** : 애! 주점. (웃음)

**안수지** : 주점 이야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아니었고 저희 과 동기였는데. 주점 운영하면서 부추전을 부쳐서 팔았거든요. 근데 부추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여기도 많이 있는데 잔디를 뜯어다가 부추전으로 팔았던 기억이 (웃음). '이거 어디서 났어?' (웃음)



▲ 수정대동제 모습(1990년대)

**배달래, 이미경** : (웃음)

**안유진** : 컴플레인은 안 들어왔나요?

**이미경** : 술 먹으니깐 모르지. (웃음)

**안수지** :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보나** : 풍문으로만 들리던 얘기인데 실제로!

**안수지** : 저희 전시 그룹에 이미경 선생님과 저하고 같이 한 10년 전부터 같이 한 전시 그룹이 있는데 그 멤버이기도 하고요. 직접 그 풀 뜯어서 (전을) 부치셨던 분이 지금도 작가 활동 잘하고 계십니다.

**안유진** : 다행이네요. 요식업계로 안 가시고.

**배달래, 이미경, 안수지** : (웃음)

**배달래** : 요즘은 남학생도 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입학 허가를 하잖아요. 그때는 진짜 금남(禁男)의 학교였어요. 그래서 대동제

때가 아니면 남학생들이나 남자 사람들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동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학교에 남자들이 보이고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선하고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안수지** :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했던 건 아닌데. 저희 서양화과하고 고려대학교, 산 너머에 있는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하고 연합동아리가 있었어요. '이젤(EASEL)'이라는 동아리인데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 도면, 데생하잖아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건축과에 들어가서 그림을 못 그려서 저희 서양화과 학우들한테 그림을 배우고 또 같이 여러가지 서클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때 어울리면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8기, 동아리 8기였고, 지금은 거의 40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05

### 기억에 남는 서양화과 교수님

**이보나** : 앞서 여러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 저는 이광미 교수님. 교수님이 참 유머러스해요. 유머러스하고 카리스마가 있는데 좀 재미있게. 정말 학생들한테 어렵지 않게끔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바자회 때 소품을 냈는데. 제가 그때 욕심이 많았는지 바구니에다가 모과를 너무 꽉 채운 거예요. 교수님이 “월 이렇게 욕심이 많게 꽉 채웠냐. 좀 덜어.” 그래서 하루 만에 쓱쓱 덜었더니. (교수님이) 어느 날 보시더니 “벌써 고쳤네?” 그러면서 그거를 나중에 냈더니 그게 팔렸던. (웃음) 그런 기억이 있고.



▲ 이광미 교수님

**안수지** : 저 같은 경우는 4학년 때, 4학년 주임 담당 선생님이 박복규 교수님



▲ 박복규 교수님

이셨거든요. 박복규 교수님께서 4학년 실기실 바로 옆이 연구실이셨어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시는 일이 많으셨었는데, 작업하시다가 짜장면을 시켜드시는 날이 종종 있었는데, 하나만 시키기 뭐하다고 꼭 두 개를 시키셔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학생들 “누구 작업하는 사람 있으면 와서 먹어라.” 그래서 와서 먹지 않도록 이렇게 갖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늘 수업 시간이 아니어도 한 번씩 작업실 들러보셔서 누가 작업하고 있나 이렇게 챙기셨던 기억이 나요. 최근에 한 3~4년 전에 작고(作故)하셨죠.

**배달래** : 이광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나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고, 기대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미경** :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

**배달래** : 칭찬 참 많이 해주셨어요. 왜 그렇죠. 칭찬은 그래도 좀 추하게 한다고, 학생들에게 기를 북돋아 주고 열심히 하는, 나 스스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던 분이예요. 박복규 교수님 그다음에 이광미 교수님 (말씀) 하셨고.



▲ 조영동 교수님

조영동 교수님은 참 따뜻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렇게 여러 다양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가끔 들어오시면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이것밖에 못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분 같아요. 들어주시고 그냥 좀 이렇게 쳐다봐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박복규 교수님은 젊으셨어요. 저희가 학생 때 아마 교수님이 40대, 50대 초반이겠을 거예요. 40대 초반. 그래서 굉장히 젊으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친구처럼 지낸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금방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이미경** : 조영동 교수님이 약간 추상 작업을 많이 하셨어서 그런지, 추상 작업하는 친구 칭찬 엄청 했던 기억이 나요. (웃음) 전 추상하고 제 성향상 좀 안 맞아가지고 잘 못했는데 추상을 좀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앞에서 평가할 때는 엄청 칭찬을 하셔가지고 기를 또 북돋아 줬던... 그랬던 게 옆에서 지켜본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나 (생각) 했더니 추상 작업을 많이 하셨대요.

**안유진** : 저희가 이번에 조영동 교수님 관련한 전시 연계로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궁금했던 게, 여러 교수님들과 조영동 교수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던가 혹은 미술가가 되기 위한 조언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지** : 조영동 교수님은 주로 4학년 수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학년 수업은 많이 안 하셨고, 제가 4학년 졸업할 즈음에 학기가 끝날 때쯤이죠.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특강을 해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통 저희가 학과 정원이 40명인데 그 40명이 모두 다 작가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작가가 되더라도 어떤 생업을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보통은 미대 졸업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림을 가르치는 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작가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미술교육을 할 때 어떤 자세라던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미대 졸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후원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작가 활동을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그때 ‘학생

들이나 혹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작업을 계속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귀뜸도 해주시고, 굉장히 그때 특강을 해주셨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자료들을 검색하고, 기억을 되살리다 보니, 예전에 대학교수로 계시기 전부터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남다른 그런 조예가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특강에서 다뤄주셔가지고 이후에 저도 졸업하고 한동안 미술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안유진** : 조영동 교수님께서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봤을 때는 '조형 이론'이라는 강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론적인, 생활 미술인으로서의 진로라든지 이런 것보다 정규 수업으로도 이론 강의나 이런 걸 진행하셨던 게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론 강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미숙 교수님께서 주로 담당하셨나요?

**안수지** : 저희 때는 이론 강의를 없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배달래** : 제가 (수업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것 같은데... 4학년 때 아마 수업을 한 것 같고 졸업여행을 같이 갔었어요. 조영동 교수님하고 4학년 때. 근데 그때 수업이 실기 수업 위주였고 실기 수업을 하면서 이론을 같이 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그 조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기억은 사실 지금 잘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때 수업에 뭔가 추상으로 범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계기로서 저 안에... 저를 이렇게 건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너가 가장 뭔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 약간 그런 부분들? 아름다운 거를 왜. 그려놓은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해(할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려놓은 걸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 '예쁘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를 조형적으로 어떻게, '조형'이라는 단어를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체득하듯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수지** :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조금 생각이 나는 부분이 '조형론'이라는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조형론에서 이론을 다뤘다기보다는 조형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배달래 선생님) 말씀하신 조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실기 위주로 했었던.

**배달래** : 실기 수업이었어요. 이론이 좀 더 중점이 돼서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나와 연관 지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형으로 같이 풀어낼 건가. 니가 가장 생각하고 있고, 니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풀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 근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거를 주입하거나 가르치기보다는 생각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실기실에는 교수님이 늘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들어와서 보시고 좀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비워두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안수지** : 학부 시절에 조영동 교수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제가 한 번 정도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추상 작품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그 작품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이런 작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조형적인 세계를 그런 추상 형태로 풀어내시면서 그것도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자기만의 조형 세계를 갖도록 하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배달래** :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지 않았을까. (웃음)

**안유진** : 실기실에서 조영동 교수님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래** : 항상 늘 뒤에서 (고개를 기웃거리며) 이렇~게 쳐다봐 주신 거가 생각이 나요. 저희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계속 쳐다보시고 그

거를 나름의 스타일대로 해석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너 이거 왜 어떻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거는 왜 어떻게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 주실 수도 있는데. 짧은 대화, 그렇게 길게 대화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 저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참을 (그림을) 보시고 나름의 속으로 이렇게 계속 이해하시고, 그리고 걸러내시는? 어떤 한 문장으로 얘기를 많이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다음은 너는 어떻게 풀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한번 그 대화에서 자세한 거는 아직 생각이 안 나지만 “붓이 가는 대로 가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손끝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나이고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이 조형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건 그냥 그때는 수업인 줄 알았지 그게 크게 내 작업의 하나의 방향이 되고 줄기가 되고 이렇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그냥 학생들한테 늘 그렇게 뒤에서 쳐다봐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분 같아요.



▲ 조영동 교수님 실기수업

**이미경** :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이 막 많으시고, 과하게 하지는 않고 정말 조용조용 느릿느릿하게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요즘 말로 극 ‘i’ 성향이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MBTI (유행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영동 교수님이) 조금 내성적인 부분도 없지 않으셨을까. 여자 학생들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서. (웃음)

**안수지** : 저희가 아무래도 여대이다 보니. 좀 더 여학생들을 배려한 수업 방

식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뭐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워주신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06

### 성신서양학회

**이보나** : 이어서 서양학과 동문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서양학과는 동문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1975년부터 시작한 ‘난우회’, 1984년 ‘난원회’ 등 많은 그룹들을 결성하여 동문전을 개최하고 있으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활동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달래** : ‘난우’, ‘난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저희가 동문 활동을 해오다가 몇 해 전에 몇 년도죠? ‘성신서양학회’로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신서양학회 몇 회 이런 식으로, 올해가 몇 회 전시이죠?

**이미경** : 47회.

**배달래** : 47회인가요? 거의 50주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여대를 졸업 하게 되면은 여성이다 보니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잠시 육아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경력 단절이라는 걸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다시 뭔가를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두드릴 수 있는 게 ‘동문전’이었어요. 저도 동문전을 통해서 한 번 같이 활동하다가 다시 이제 작가로서, 저도 10여 년의 경력 단절이 있거든요.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다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문전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단지, 그냥 졸업자로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속력을 통해서 후배들을 끌어주고 우리가 같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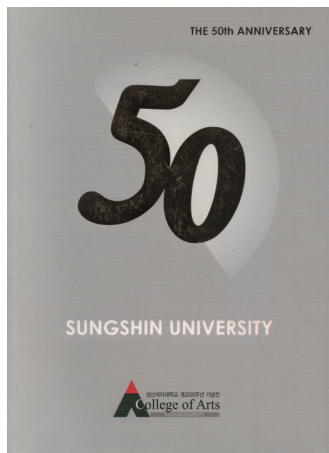
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저희는 성신서양화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경** : 예전에는 대학원만 그러니까 학부만 졸업하면 '난우전'이었고, 대학원을 나오신 분을 '난원전'이라 해서 활동을 한 게 대학원은 타 대학에서도 오시니까. 그래서 따로 했다가 나중에는 '성신서양화회'로 합친 거죠.

**이보나** : 난우회와 난원회가 합쳐져서 성신서양화회가?

**이미경** : 네. 대학원과 학부 다 합쳐서 동문이 활동을 하는데 다음달 10월 23일부터 인가요? 일주일 동안 성신서양화 동문전이 있어요. 인사동에서 올해 있고, 내년엔 60주년이라 '미대 동문전'이라고 모든 미대 과가 한꺼번에. 5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인사동에서 내년엔. (웃음)

**안수지** : 아까 보여주셨던 두꺼운 게(도록이) 50주년.



▶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총동창회에서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기념전(2015.06.10.~06.16.) 도록

**이미경** : 55주년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그냥 따로 좀 하다가.

**배달래** : 좀 작게 치러졌다가. 60주년을 앞두고 저희가 크게 인사동에서 지금 다 (제 47회 성신서양화 동문전) 세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크게 다시.

**이미경** : 인사동 '마루아트센터'가 한 4층까지 있나? 그걸 다 빌리다시피 하니까. 좀 크게 하는 거죠.

**배달래** : 5년마다 미대의 5개 과가 다시 모여 크게 성대하게 이루어가고. 그 역사가 60주년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성신의 역사가 미대의 역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숙종 할머니께서 학교를 설립하셨을 때 인연도 서양화과에 대한 좀 굉장히 애정이 깊으셨던 것만큼. 예술에 대한 이해와 여성들의 힘을 예술과 함께 뭔가 펼치고자 하셨던 그 꿈이 저희한테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신의 미대가 다른 타 대학의 미대와 다르고. 여성들의 얘기. 주장하는 어떤 그 성향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여대와 '다르다'라는 거는 거기에서부터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경** : 제가 알기로는 미대가 통틀어서 같이 전시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을걸요. 다른 학교들이 같이 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신이 모든 미대 학과가 한꺼번에 전시하는 거예요. 동문들이 모이는. 의미가 있죠.

**이보나** : 혹시 지금 이것 말고도 서양화과 동창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활동들이 또 있으신가요?

**이미경** : 네. 올해 바자회 하고.

**안수지** : 동문에서 하는 바자회가 있고, 성신 서양화 출신으로 구성된 우리 90, 91학번이 중심이 돼서 한 10년째 계속 그룹전을 해오는 단체도 있거든요.

**이미경** : 전에는 서양화과에서 동문전을 하고 나면 단체로 여행을 갔던 일들이 좀 많았어요. 1박 2일 해서 전주도 갔다 오고 동해 삼척도 갔다 오고. 전시 끝나면

바로 차 대절해가지고 동문 대선배님이랑. (웃음)

**배달래** : 그러니까 저희가 서양화 동문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기부터 최근 대학원생까지 모두 다 모여요. 40~50명이 모여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을 다니면서 해요, 전시를. 그래서 전라도에서도 하고 강원도 아니면 경상도, 서울, 경기 모든 데에서 전시를 하면서 1박 2일 여행을 겸해요. 그래서 선배와 후배가 만나서 같이 하룻밤을 자고 얘기하고 전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서양화에 대한 서양화과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해오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지고 잠시 멈췄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유도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보나** : 굉장히 부럽습니다.

**배달래, 이미경, 안수지** : (웃음)

**배달래** : 저희 한번 봄에 할 때. 그때 우리 어디죠?

**이미경** : 마루아트센터요?

**배달래** : 아뇨, 아뇨. 몇 년 전에 제가 회장을 할 때였는데. 구례 쪽 봄에 한번. 여기 다 같이 가지 않았나요?

**이미경** : 저희 갔었죠.

**배달래** : 남원에서 시작해서 구례를 돌아서 벚꽃길을 돌아서 79학번, 76학번 선생님, 선배님부터 대학원생까지 모두가 다 소녀처럼 좋아하는 그 여행이 너무 좋았고, 전주에서 전시할 때였어요. 교동아트센터(교동미술관)에서. 그런 추억들이 다 저희들한테는 하나하나 (소중하죠). 집행위원 여기(업무) 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죠. (웃음) 근데, 하고 나면 회원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또 너무

뿌듯하고.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너무 그때 좋았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좋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전시)했을 때 또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지나간 거. 그게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웃음)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니 그때 진행할 때는 너무 힘든데 이거 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 짠하다.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냥 같이 있는 그 순간이 역사라는 생각에 그냥 너무 애뜻하고 좋은 거예요. 또 전시가 10년 전에 북경에서 전시하면서 또 그렇게도 했고, 해외여행까지도 같이. 그때 이춘옥 교수님이, 저희 동문 교수님 주도하에 북경 전시까지도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문회를 이끌어가시고 저희가 또 많이 도와드리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 『성신회화전 35회 성신난우·난원북경전 (誠信會畫展 35屆 誠信 蘭友·蘭院北京展)』, 성신난우·난원회가 북경에서 개최한 전시( 2009.07.04.~08.08.) 도록

**이미경** : 저도 아이 키우고 하면서 잠깐 단절이 되어 있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그림을 그리는 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지만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저희 선배님이 많이 끌어주셨어요. 갤러리도 소개시켜주고, 관장님도 소개시켜주고 좀 쉽게 내가 바깥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게 동문 선배님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후배들한테 좀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후배님들이 너무 각자 너무 잘 나가요. (웃음) 왜냐면 접근하기가 이제 인

터넷도 많고 SNS도 많으니까. 굳이 선배님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잘하 시더라고요.

**배달래** : 왜냐하면 우리 때보다 많이 열려 있어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요. 우리 때는 정부 지원 이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본인만 부지런하면 그 기회를 습득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많아요. 그 청년 작가들이 돈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시간들은 충분히 있고 어떻게 하나에 달린 것 같아.

**이보나**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성신여대 선배님으로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 제가 선배님 덕분에 도움을 받았듯이 후배님도 선배님께, 동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좀 유명하게 활동하는 작가님도 있고. 만약에 고민이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 동문은 또 잘 뭉치고. 다른 학교보다는 후배를 아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 알아 주셔서 좀 같이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달래** : 굉장히 우리 20대 이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저희 기성세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꿈을 펼쳐나가기에 이 사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너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때의 20대와 다르게 너무 많은 거를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어떤 기사에서 20대가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노력하는 부류'와 그다음에 '멍부류(머무르는 부류)'. 그러니까 완전 멍하니 그냥 '내가 해서 뭐 해? 결국은 안 될 건데'. 근데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 생각해요. '기성세대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

을까?' 저희 아이들도 20대고 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났으니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야지. 재밌게 사는 선택도 여러분의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도 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그리고 특히 예술을 하는 후배들에게 뭔가 한마디를 조금 더 보탤 수 있다면. 너무 돈 되는 것만 찾지 마라. 인생은 거기에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내가 재미있고 내가 즐거워야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거기에다가만 맞추다 보면 내가 피폐해질 수 있고 내가 불행해진다면 그거는 예술도 삶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즐겁게. 그리고 내 목소리를 담은 그 무엇인가가 뭔지를 찾아서 나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바람입니다.)

**안수지** : 저희 때도 그랬겠지만 서양화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들 그림이 좋아서 혹은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진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림뿐만 아니라 이 예술 분야에서 진정한 어떤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니 뭐 이런 인공지능이니 해서 다 첨단화되고 있지만 그런 첨단 기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련된 학업을 하는 전공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노력을. 그리고 지금 서양화과에서 배운 이런 학업들이 나중에 다 자기를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들을 잘 가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보나**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구술채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7

###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 구술 및 채록 정보

- 1) 인터뷰 일시 : 2024.09.20.(금) 14시 55분
- 2)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 성신관 809호 소회의실
- 3) 구술자 : 홍기자
- 4) 면담자 : 이보나(기록연구사), 안유진(학예연구사)
- 5) 촬영 : Worthstudio
- 6) 인터뷰 기록 : 이보나(기록연구사), 장하영(박물관 행정인턴)

## II. 동문 : 홍기자(미술교육과 67학번)

01 소개	44
02 성신여자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재학시절	44
03 미술교육과 실기실	56
04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강사 시절	57
05 성신난우회, 성신난원회	63
06 성신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65
07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67

#### 약력

- 성신여자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67학번
-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강사(1986~1995)
- 제1회 성신미술상전 평면부문 수상(1999)

# 01

소개

**이보나** : 2024년 9월 20일 오후 2시 55분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09호 소회의실에서 홍기자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홍기자** : 안녕하세요?

**이보나** : 먼저 선생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홍기자** : 저는 1971년에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자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와 72년에 조교로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술교육과는 두 명의 조교가 있었고 교수실은 4개가 있었습니다. 서양화과가 교수진이 가장 많아 교수실 두 개를 사용하고 동양화과 교수실, 공예과와 디자인과는 교수실을 공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시절 조교로서의 경험은 지금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기억됩니다.

**이보나** : 성신여자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입학하기 전 대학에 대해 들은 바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기자** : 제가 성신여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집도 바로 그 밑에 있었고, 성신여대(성신여사대)가 2차<sup>1)</sup>였어요. 처음에는 한동네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지는 않았죠. 그런데 2차였기 때문에 여길 오게 됐는데, 저 스스로 온 것보다는 지금도 제가 유일하게 만나는 우리 선생님, 서양화가 이봉열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유일하게 성신여사대는 2차 학교 중에는 최고로 좋

1) 1964~1968년 대학입시 제도는 대학별로 실시되는 자체선발 고시로 진행되었다. 전형 방법은 필답고사와 신체검사 및 면접을 실시하고 전형기일은 전·후기 중 선택해서 실시하였다. 성신여자사범대학교는 전기와 후기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후기로 진행 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자 1966학년도부터 입학시험은 후기로 진행되었다. (참고 : 성신50년사편찬위원회, 『誠信五十年史』, 1989, p.145)

은 학교가 앞으로 될 거고, 지금도 좋지만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유명한 학교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숙종 학원장님이라는 설립자가 있는데 (나는 그때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이화여대에 있는 김활란 박사나 김옥길 총장보다 더 버금가는 여성학자로서 여성의 교육학자로서 대단하신 분이이다.” 그리고 일본의 동경여자예술대학교(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1호 서양화가 나혜석 씨라고 있죠. 그분 다음에 2호가 우리 이숙종 학원장님이셨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요. (학원장님) 작품들도 있어요.



▲ 이숙종 작 <꽃>, 유화, 42×57, 1924년,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런 분이요 서양화과는 다른 과는 몰라도 성신이 빨리 큰 이유가 미술대학 때문에 빨리 컸어요. 그 이유는 학원장님이 미술대학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동경여자미술학교(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나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계셨기 때문에 미술대학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갖추기 위해 이름만 알려진 사람이 아닌, 실력과 명성을 겸비한 분들만 교수님으로 모셨어요. 전임 교수는 물론이고 시간강사까지도 말이에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교수, 홍대 교수,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미술대학에 있는 교수들로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성신에 와서 4~5년씩 시간강사를 거치고 간 분들이 다 전임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이 몇 개 없었어요. 지금은 대학이 많잖아요. 이옆에 한성대학교 그런 건 없었을 때예요. 거의 없고 여자대학교에는 이화여대, 동덕, 덕성, 성신, 그다음에 숙대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서울여대가 생겼죠.

그래서 여성 교육자로서는 이화여대에 있는 김활란 박사, 그다음에 김옥길 총장, 그다음에 우리 성신의 이숙종 학원장님. (운정) 이숙종 박사님. 그다음에 이태영 박사라고 법률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한국을 빛낸 여성 교육학자라고 하면 그 네 분이 제일 유명하시고, 세분으로 추리라고 그러면 김활란 박사, 이숙종 박사, 이태영 박사 이렇게 세분이 한국의 여성 교육학자로서 가장 자리매김하신 분들이세요. 유명하신 분이예요 학원장님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르시지만, 여성 교육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학에 대한 이론이 확실하셨던 분이예요. 어떤 분이셨냐 하면 교육학자니까 너무 진부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가장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하신 분이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수, 가장 실력 있는 교수(만 채용 하셨어요). 심지어는 저 앞에 보면 5층 건물인데, 세상천지에 5층 건물에 계단이 없는 학교 보셨어요?



▲ 현재 난향관 자리에 있던 옛 강의 1동 교사 건물

계단이 없는 건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계단이 없었어요. 왜?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 공간이. 근데도 왜 없냐. 주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놨는데 (학원장님이) “애들이 작업을 하려면, 계단이 있으면 못 들고 다닌다. 조각이고 서양화고 화폭이고 물감이고 이런 걸 못 들고 다니니까 그냥 끌고 다니게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만들어놨어 계단을.

그래서 우리는 이만한 캔버스도 끌고 5층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재밌지요.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주름을 파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다 해놨어요.

그런 것조차 굉장히 학생들의 그 하나하나 세심한 것을 살피주는 분이셨어요, 학원장님이. 근데 그거를 아는 분들은 학교 건성으로 다녔으면 몰라. 근데 저는 그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교수진을 그렇게 굉장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는 제가 조교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학교 강사로 쪽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 옛 강의 1동 교사 건물 복도 모습

**이보나** : 미술교육과 재학 시절 에피소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재학 당시 학과 분위기가 어떠했나요?

**홍기자** : 학과 분위기... 예를 들어 서양화를 한다 그러면 조금 촌쪼, 학교가 추워요. 여기 돈암동이 산 밑이라 참 추운 동네예요. 이렇게 시내 한복판 같지 않고. 이 돈암동 미아리 고개가 지금은 건물이 많은데 옛날에는 별로 건물이 없을 때니까 돈암동이 좀 추웠어요. 산 밑이라. 그래서 가을에 한 벌써 10월, 11월쯤 되면, 12월까지 수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누드모델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장두건 교수님이란 표승현 교수님이, 김흥수 선생님도 프랑스에서 막 오셨죠.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일주일에 100장을 그려오도록 해요. 크로키(Croquis)를 누드가 뒀든 옷을 입었든 크로키를. 그래서 우리는 그 100장을 그리기 위해서 서울역도 다니고 다방도 다

니고 지금은 찾집이지요. 가가지고 오래 앉아서 그려야 돼. 그래서 서울역 같은 데 많이 갔어요. 그다음에 찾집 같은 데 앉아서 저 멀리 있는 사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졸업할 때 보통 일반 대학은 4학년 때까지 48점 학점만 따면 졸업했어요. 48점이 맞나?

**이보나** : 우리 학교는 그 당시 교육과정 살펴보니깐, 교양과목 50학점, 교직 32학점, 전공 87학점 총 169학점이요.

**홍기자** : 조선일보 신문<sup>2)</sup>에 크게 나기를 그 당시에 어떻게 냈냐면 성신여사대가 전국을 합쳐서 가장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학교로서 학점이 일반 다른 대학보다 한 30점, 30여 점이 더 많았어요. 148점인가 그럴걸요? 졸업할 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180여 점 정도를 땀다. 교육학을 물론 많이 이수해야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교육학도 종류가 많았어요. 무슨 교육학, 무슨 교육학 해가지고 많았고. 아주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학교로 신문에 오죽하면 조선일보에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안유진** : 저는 궁금한 게 미술교육과 재학을 하셨잖아요. 그때 미술가로서의 양성을 더 주로 했는지, 아니면 미술교육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수업이 더 주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홍기자** : 이름은 미술교육과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졸업할 때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교사 자격증도 받았고요. 중학교 교사 자격증도 받았지만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굉장히 빡세서, 교육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기(공부량이 많았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최고의 교수를 모셨다고 그랬잖아. 오죽하면 와서 가르치는 교수마다 다 무슨 얘기를 하나면, 그 얘기는 제가 다닐 때도 그랬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그 얘기를 들었고, 제가 강사로 다닐 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오는 교수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2) 홍기자 선생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정확한 출처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함

“아니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왜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해?”, “실기 굉장히(많이) 가르친다.” 그러면서 대학원 수업을 할 때 교수들마다 와가지고, “서울대학보다도 많이 가르치고 이화여대보다 많이 가르치네.” (라고 하셨어요) 다 서울대학하고 이대 나가시는 분들만 오셨거든. 그럼, 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신은 모두가 미술대학은 무조건 서울대학 출신이어야 돼. 특히 서양화과는 서울대학 출신이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전임은 99%가 서울대학이에요. 아닌 사람이 몇 년에 한 번 있을 뚱 말 뚱 해. 그 아닌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정년 퇴임한 한만영 선생님, 흥대 나오신. 그다음에 돌아가신 박복규 선생님. 그 두 분만 타교에서 나오신 분이요 나머지는 다 서울대학이 자매 학교 같았어. 성신 자매. 그렇게 아주 학원장님이 까다로우셨어요. 이 사람은 학벌도 좋아야 하고, 실력도 좋아야 하고, 뭐 이런 거를(중요시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학구적이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점수(졸업이수학점)가 많아진 거예요. 실기도 많이 해야 하고, 실기는 일반 미술대학처럼 다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학은 교육학대로 일반 사범대학처럼 다 받아야 하고, 그래서 거의 40점 이상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진도 배웠어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사진 작가한테 배웠는데, 그냥 배우지 않고 맨날 창경원(昌慶苑)도 가고 창덕궁(昌德宮)도 가고 사진 촬영하고 어떻게 찍어야 좋다는 것도 배우고, 화가로서 그건 필수죠. 앵글이 어떤 초점이어야지 좋겠다 뭐 이런. 그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저희 때는 서양화만 배운 게 아니라 조각에서부터, 조각도 다 했으니까, 우리는. 조각했죠. 교육학이니까. 디자인도 했죠. 공예도 했죠. 도자기도 구웠죠.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는데 동양화도 했죠. 다 했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배워서 지금도 하라 그러면 다 해. 그 정도로 철저하게 했고. 제가 82년도에 대학원을 들어와서 84년도까지 대학원 2년을 다니고, 그다음에 84년도인가 85년도부터 강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빡세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야. 85년도인가? 그때부터 사범대학이 종합대학이 돼버렸어요.

**이보나** : 1982년도요.

**홍기자** : 종합대학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시 미술대학에서는 이전처럼 뽀뽀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미술대학에서 필요한 과목들만 배우는 식이었죠.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으면 사범대학으로 가거나, 따로 교육학 과정을 이수해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당시 꽤 많은 것을 배웠던 셈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 교사 자격증을 받고 교사가 된 분들은 대부분 실력이 뛰어났죠. 옛날에는 교사들이 정말 실력 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각자 전공 분야만 딱 공부하는 추세잖아요.

**이보나** : 시험이라든지 과제도 어마어마하셨겠네요.

**홍기자** : 그렇죠.

**이보나** : 다양한 걸 많이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강의를 있으셨을까요?

**홍기자** : 서양화 강의인데 모델이 추우니까 11월, 12월에 모델이 난로 떴고 서 앉아 있는데.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모델을 썼어요. 전문적으로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소묘 때는 모델을 썼거든요. 누드모델이에요. 모델이 너무 졸려서 굴러떨어졌는데 (웃음) 난로가 쪽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왜냐면 이런 (넓은) 단위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꼬떡꼬떡 졸다 떨어진 거야. 근데 난로가 옆에 있잖아. 그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건, 학원장님이 얼마나 정성이 넘치고 극성스러울 정도인지. 어느 정도냐면 해마다 우리는 발표회를 했어요. 그 발표회를 처음에는 복도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어디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민회관이었어요. 불타기 전까지 시민회관이라고 그랬다가 불이 타가지고 전소되는 바람에 그걸 세종문화회관으로 바꾸면서 다시 건물을 세운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시민회관 빌려서 전시하는 학교는 전국 따져서 성신밖에 없었어요. 빌려주지도 않아. 시민회관이라는 데

가 나라 거잖아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지도 않는데, 그거를 학원장님이 힘을 쓴 거지. 시민회관에서 성신여사대가 전시회를 했어. 와! 그때 그걸 전시하면은 전국에서 보러 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성신여사대도 그때 막 클 때니까, “도대체 저놈의 학교는 뭘 가르치길래 저 난리야?” 이러면서 올 거 아니야. 서울대학에서부터 다 보러 왔거든. 그러니까 너무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밤새도록 그렸어요. 학교에서 밤새도록. 그러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맨 끝에 있었어요. 옛날에. 1층 맨 끝 양쪽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 화장실이. 그랬던 생각. 그리고 맨 아래층 1층은 문을 잠가 버렸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밤에는. 밤 10시, 11시 되면 그때는 여학교니까 위험하다고 다 잠가. 그러니까 우리는 2층, 3층, 4층, 5층에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나선형으로 된.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니까 어떻게 했겠어.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밤새도록 그림 그렸던 작업했던, 그 밤새도록 했을 때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디자인. 문태선 교수님이라고 전임교수 있었어요. 디자인도 했어야 되고. 또 우리는 도자기도 구웠어야 되고, 또 조각도 했어야 되고. 토르소(Torso). 전신상까지는 안 배우고 우리 반신상까지 배웠거든요. 토르소도 했어야 되고, 뭐 안 한 거 없이 다 했어. 사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새도 모자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민회관에다 전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수들이 신경이 곤두셨겠어요. 저는 특별히 더 조금 잘한다고 교수가 자기 집까지 데려가서 과외 수업까지 받아 가면서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안유진** : 화풍이라든지 ‘성신여대는 이런 그림을 주로 그린다.’라고 할만한 것이 있나요?

**홍기자** : 서양화과는 표승현 교수님은 대통령상 탄 추상화가예요. 그다음에 장두건 교수님은 파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처음에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랬다가 “나 도저히 안 돼.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4대손인가 6대손이래 장씨 가문의 유명하신, 초등학교 때까지 업고 다녔다는데? 그렇게 굉장한 도련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동경제국대학의 법과 대학까지 나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체질에 안 맞는 거야. 그

래가지고 뛰쳐나가서 일본을 도로 가서 태평양미술학교라는 데를 나오고, 그것도 승이 안 차서 다시 또 뛰쳐나가서 파리로 가서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오신 분이예요. 그래서 자기 화풍이 확실하세요. 근데 그분은 어떤 화풍이나 하면, 극사실을 토대로 자기식대로 풀어놓은 화가예요. (성신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장님까지 하고 정년 퇴임하셨어요. 학장하시고 나중에 동아대학까지 가서 또 (예술대학) 학장하시고 정년 퇴임하셨는데 자기 화풍, 독특한 데가 있는. 사실이더라도 지루하지 않은 자기식대로의, 파리에서 주목받았거든요. 상도 받으시고, 그때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입체적인 파티 테이블인데, 테이블에 음식들이 늘어져 있는데, 그거를 상당히 독특하게 위에서 이렇게 짝 내려다본, 그런 입체적인 그림. 상당히 재밌는 그런, '장두건' 그러면 독특한 화가예요. 그런 분이셨고, 표(승현) 선생님은 아주 따뜻한 추상화가였고 대통령상까지 타셨지.



▲ 표승현 교수



▲ 장두건 교수

그래서 저희는 오시는 선생님들이 사실 화가는 거의 없었고, 초현실주의 작가든가 추상 작가든가. 그다음에 홍대 교수들은 기하학적인 추상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또 서울대학에서 오신 분은 류경채 선생님이라고 교과서 많이 (쓰신 분). 그 선생님이 계속 오셨고 류경채랑 이봉열 제 은사님, 이 두 분은 다 추상화가죠. 유명하신 추상화가들이었어요. 상도 많이 타시고, 그런 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부심이 있죠. 뭐 '아무개한테 배웠다.' 이런 자부심이 있죠. 교수들이 그렇게 시시한 교수가 없었어. 강사조차도 저희 때는, 지

금은 이제 너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고 학생도 많아지고,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강사로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가 워낙 조금이었거든요. 서울 안에도 미술대학이 5개 학교 정도밖에 없었어요. (서울 안의 타 여대도) 요즘 와서 이렇게 커진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뭐가 없었어. 근데 성신은 이대를 뛰어넘으려고 우리 학원장님이 그렇게 애를 썼던 거야. 이화여대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화여대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와 전통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서양 화과만큼은, 미술대학만큼은 이화여대와 서울대에 견줄만한 수준의 명문으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교수진과 실기 강의에 아낌없이 정성을 쏟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대학 와서 강의할 때 보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90년대 되니까 조금 아무래도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sup>3)</sup> 아무래도, 왜냐하면 강사들이 다양하니까. 배운 것도 다르고 또 우리 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보나** : 말씀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학 시절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겠더라고요. 제가 조사 좀 하다 보니까 야외 스케치라든지.

**홍기자** : 야외 스케치는요, 봄·가을로 꼭 갔죠. 성신은 아주 철저했어요. 하여튼...

**안유진** : 1년에 두 번이나 가셨어요?

**홍기자** : 예, 두 번 간 것 같아. 아닌가?

**안유진** : 요즘에는 가을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홍기자** : 그리고 얼마나 많았냐면 궁이 많았잖아요. 멀리도 안 가요. 비원(祕)

3) 홍기자 선생 개인의 의견임

苑). 옛날엔 비원이라고 그래서 개방을 했거든요. 지금은 개방을 많이 안 하는데. 비원이 어딘지 아세요? 창덕궁 안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비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연못 있는데 무슨 정이야. 연화정? 후원에 연못 있죠? 큰 연못.

**안유진** : 연경당(演慶堂).

**홍기자** : 연경당. 그 뒤에 유명한 서재 있잖아요. 그 정조가 많이 드나들던. 그 연못 옆에 있는 2층, 3층 된 서재 있잖아.

**안유진** : 희정당(熙政堂).

**홍기자** : 희정당, 거기까지 밖에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불로문(不老門)이라는, 돌로 된 늙지 않는다는 문이 있어. 그리 들어가서 쪽 끝까지 가면 시크릿 가든이 나오는데 거기를 (출입) 제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 못 다니게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문을 열었어. 특별한 어떤 행사나 이럴 때만.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구경 못 해. 우리 때는 아무 데나 갔어. 그 시크릿 가든 안에는 정말 좋은 데가 많았어요. 연못도 많았고, 반도지(半島池)서부터 연못이 많았어요. 그런 데 앉아서, 그때는 사람이 안 무서울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 가서 조용히 그림을 그려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 참 순수한 시대였어. 지금은 그런 데 들어가면 누가 해칠까 봐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교수들도 가까운 사대문 안에 있는 궁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서양화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같이 간다 이럴 땐 서울농대(서울대학교 농과대학)라든가 이렇게 큰 데(로 갔어요).



▲ 홍기자(맨 뒷줄 왼쪽 3번째) 대학교 3학년 때 수원 서울농대 야외 스케치(1969), 홍기자 제공

그다음에 옛날에 어디였냐 하면 참 잊히지 않는 게, 독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학교에서 서양화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데리고 갔는데 나룻배를 타. 그러면 그때는 1학년부터가 아니다. 서양화과니까... 3학년, 4학년이겠지요? 나룻배를 타고 교수들 다 데리고 가는데 독섬이 어디냐 하면 지금 봉은사(奉恩寺). 봉은사 아시죠? 그 유명한 건물, 봉은사 옆에 무슨 건물이에요. 무역센터 있는데. 코엑스. 그 건물 있는데. 그땐 그게 없었어요. 봉은사도 조그마했어요. 봉은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독섬에서 나룻배를 타면, 다 논밭이야. 다~ 논밭이야.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야 봉은사가 그 근처가 논밭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서 풀어놓고서 그림 그리고, 야외 스케치 하고, 그리고 저녁때 삐그덕 삐그덕 하는 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독섬에서 내려. 독섬이 어디냐 하면 지금 얘기하면 워커히 호텔 근처예요. 워커히. 그럼 거기서 이제 학교... 뭘 타고 갔는지 기억은 안 나고. 버스를 타고 갔겠죠?

학교에서 수업 아닌 날, 시간 많은 날 숙제를 내준다고 하면 일부러 비원에 뛰어가고 창덕궁에 뛰어가고, 그 속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숙제, 과제물 내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 그중 그림이 하나 내 화실에 있어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비원에 가서 내가 그렸던. 정말 옛날 그림이지. 그게 하나 있는 게 생각이 나네.

## 03

### 미술교육과 실기실

**이보나** : 성신여자사범대학 다니셨을 때의 캠퍼스와 현재의 캠퍼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홍기자** :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요. 물론 새로 수정관도 생기고, 또 여 기 성신관도 새로 리모델링했고, 또 그 중간에 미술대학(조형 1관) 그것도 새 로 만들고 그랬지만 교정은 똑같잖아요. 땅덩어리는 똑같잖아요. 후문도 있고 앞문(정문)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 금씩 변했을 뿐이지 그렇게 확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땅이 적다는 게 조금 아쉽죠. 땅덩어리가 작다는 게.

**이보나** : 그러면 그 당시 미술교육과 교사 건물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나요?

**홍기자** : 저 건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보나** : 이 건물이요?

**안유진** : 난향관이요?

**홍기자** : 그게 난향관이구나.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지금은 계단이 있나요? (예전에는) 나선형이었어 계단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 그게 좋아 계단보다.

**이보나** : 그때 강의실 기억나세요?

**홍기자** : 그럼요. 강의실 굉장히 컸죠. 그리고 강의 받을 때는 뭐 열심히 다니 느라고 정신없었는데. 강의실에서 우리 그림 그리는 장면. 그거 되게 웃겨. 그 게 언제 찍었나 몰라. 학보에 낸다고 그걸 옛날에 찍었던 것 같아. 그때가 3학 년인지 4학년 때예요. 작품 100호짜리 다 세워놓고 사진 찍는다고 그래서 그 때 몇 명이 딱 찍었죠. 그림 그리는 장면.



▲ 미술교육과 실기실(1960년대)

## 04

###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강사 시절

**이보나** : 선생님께서는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강사로 재직하셨는데요. 학생 이 아닌, 강사로서 성신여자대학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어떤 점이 좀 다르셨나 요? 아니면 재직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기자** :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런 건 기억 안 나는데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 인데. 내일모레부터 애들이 전시회가 있어. 유난히 교수들이 잡아끄는 거야. “나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조기홍 총장님의 따님이 최영순 교수라고 있어요. 그 교수님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뮌헨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예요. 근데 그분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화단에도 가장 독특한, 아주 예술가였어요. 정말 참 좋은 작가인데 교수로 하지 말고 좋은 작가로 계셨으면 아주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을... 왜냐하면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은사님들 애 기가 그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뮌헨에서 오랫동안 미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예술가였 어요. 뻑 하면 그 집에 가서 그림을 그렸던 생각이 나는데. 참... 끝까지 못 본 게 내가. 나중에 독일로 가셨기 때문에 못 봤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런 좋은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성신에는...



▲ 「동문탐방- 스승이기보다는 같은 성신인이고 싶어」 『성신학보』 제228호, 1987.06.04.

**흥기자** : 이젠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는 애들을 내가 배운 것 이상으로 가르쳐주려고 (했어요.) 보통 다른 강사들은 자기 시간 외에 안 가르쳐요. 당연히 하죠 그게. 이제 전시회가 있어요. 애들이 과제 발표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에서 할 때도 있지만 교내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때 다른 강사들은 다 집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만 일요일이면 나와. 누가 시켜서도 아니야. 할 수 없이 난 나와야 돼. 왜? 너무나 잘해야 되니까 애들이.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다른 학과 교수들이나 다른 서양화과 교수들이 외부에서 오는 교수들이 볼 때, “야 이거 누가 가르쳤는데 애들 그림이 이렇게 좋니?” 그러면 ‘흥기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 나는 토요일, 일요일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 김밥까지 다 사 들고 와. 애들이 안 싸울 것 같으니까 김밥 다 사와가지고 풀어놓고 “먹어, 먹어.” 이래놓고선 가르쳤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었어요. 근데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땐 뭐 애 봐주는 뭐도 아니고(시설도 없고), 데리고 와 학교를 데리고 오면 애들이 “선생님 애 누구예요?” 이래. 교실에 왔다 갔다 하니까. 4학년, 5학년 애가. “우리 딸.” 그러면, “에이 선생님 결혼 안 했잖아요.” 얼마나 극성을 떨고 다녔으면 (학생들 인식으로는) 결혼 안 한 여자야 나는. 매일 청

바지에다 청윗도리만 입고 다녔어요. 멋도 안 났어요. 구두도 안 신고 운동화에 청바지, 청윗도리만 입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선머슴 같은 결혼 안 한 여자’로 애들이 아는 거야. 극성 맞은 여자. “우리 딸.”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선생님 결혼 안 했지 않냐, 그럴 정도였어요. (그럼 저는) 아니라고 결혼했다고. 무슨 소리냐고. “야 너 내 딸 맞니, 안 맞니?” 내가 (딸에게) 물어보면 그냥 애들 다 웃어. 그래서 애들이 이보라를 다 그때부터 알았어. “선생님 딸 잘 커요?” 지금도(물어봐요).

**이보나** : 이번 사업이 《조영동, 다시 성신에서》와 연계한 사업이다 보니 조영동 교수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재직 당시 조영동 교수님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영동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셨나요?

**흥기자** : 따님이 셋(넷)이었는데 사모님도 이화여대 나오시고,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조영동 교수님께서) 역촌동에 사셔서 가끔 뵙고 그랬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물론, 다 그랬어요 성신 교수들은. 표(승현) 선생님도 그렇고 장두건 선생님은 좀 반듯하세요. 학구적이고, 그리고 술도 안 드셔 그분은. 그러니까 장두건 교수님과는 술을 같이 먹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많이 도와드린 건 생각이 많이 나 조교로서. 또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불려가지고, 조교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해드렸어. (웃음) 인간적인 교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같이 어울려서 술도 많이 먹고, 인간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화가들이 다 우리 은사님들이었고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도 많고, 또 자택에 가서 (조영동 교수님) 사모님이 해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설날이면 같이 그랬던. 상당히 인간적인 신 선생님이셨다고 볼 수 있죠.

**이보나** : 조영동 교수님의 화풍이나 예술관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자** : 별안간 질문을 받아서... 사실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해요. 조금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확실하게 길게 얘기할 정도로 작품에 대한 교류는 많이 (없어서) 오랫동안 함께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어울리기도 많이 같이 어울리고 우리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작품들은 다 각자 세계관이 다르니까. 좀 어떤 신앙심. 천주교에 대한 신앙심 그런 것들을 많이 모태로 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주변에 또 4인방이라고 그래서 장욱진 화백님과 관계되는 제자들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를(주재료로 작품 활동한) 이남규 교수님. 그런 분도 있었고, 독특하게 늘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영동) 선생님도 그런 신앙심을 모태로 하는 그림을 더 좀 거기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셨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더 풀어지면서 그리시긴 했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거를 나중에는 조금 더 풀어가지고 더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보였어요.

**안유진** :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영동 교수님은 일명 '장욱진 사단'으로 불렸었는데요. 혹시 장욱진 선생님하고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홍기자** : 장욱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한 번 나한테 물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봤어요. 다른 가깝게 지내는 다른 교수님한테 여쭙보니까. 네 분이 계시긴 한데, 그 네 분 다 장욱진 선생님의 '예술성', 그다음에 화가의 '성품',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런 거를 흠모하고 존경한 거지 그분의 작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동화적이면서 그 내면의 세계.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부인이 '진진묘'라고 법명이 진진묘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같은 불교 도반(道伴)이셨어요. 또 저희가 다니는 동송동에 다니는 그 절 사찰하고도 가까웠어요 집이. 지금은 그 집이 동송미술관(동송갤러리)으로 바뀌었는데. 그 집터에서 (장욱진 화백님이) 그림을 그리셨었거든요 한동안. 그러면서 덕소(경기도 남양주), 서울 중심지 혜화동이니까(에서) 덕소에 가서서 장욱진 화백님이 초가집을 마련

하셔서 그림 그리시고... 정말 성품이 일반인하고는 달라요. 따님도 다 경기(여고) 나오고 다 똑똑하신 분들이예요. 사모님도 이화여대 나오시고, 그런데 장욱진 화백님은 그냥 순진무구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 작가님들이, 화백님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순수 아동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그분은(장욱진 화백) 조금 그런 게 좀 가까운 면이 있었어요. 장욱진 화백 그림 보면 그런게 있잖아요. 노인이 초가집 밑에 앉아 있고, 근데 실제 그걸 부인 이름이 진진묘인데 법명이. 그 진진묘가 독경하는 너무 멋지게 그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정신세계 그런 거를 굉장히 흠모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장욱진 화백이) 막걸리 주당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님이라도 어울리는 게 있어야지 재밌잖아. 그러니까 같이 또 이렇게 막걸리 가지고 덕소까지 가서. 그러면서 즐겁게 제자로서 그러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조영동 선생님과) 저하고는 차이가 나잖아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 은사님 비슷한데. (나이) 차이가 한 12~3년 정도지만. 그래도 우리가 격변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웠던 시대랑 우리가 배웠던 시대는 다르거든. 우리 때는 히피(Hippie)도 나오고 막 그런 문화 혁명이 막 일어나는 시대였고 (조영동) 선생님 시대는 좀 더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 세계관이.



▲ 장욱진 화백(왼)과 조영동 교수(오)

**안유진**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동 교수님과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드릴 건데요. 조영동 교수님께서 1998년도에 퇴임을 하시면서 퇴임 기념 전시회를 하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전시 이력을 소개해 주시고 전시 오프닝에서 사회자 역할도 해주셨는데, 그때 관련해가지고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혹은 그때 당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영동 교수님 정년퇴임 기념 전시회, 가온전시실  
-홍기자(왼쪽), 조영동 교수(가운데)(1998.08.25)

**홍기자** : 사실 어렵풋하게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얘기를 하자면 그 (조영동) 선생님의 신앙심도 굉장하셨고, 또 주변 가깝게 지내는 다른 선생님하고 도의 그런 교류가 다 신앙심이 많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가톨릭미술협회(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회장도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가톨릭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거를 예술로 푸는 그런 작업을 좀 의도적으로 더 하시지 않았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걸 좀 많이 또 풀어주시지 않았나. 나중에 작품들은 많이 더 자연스럽게 더 회화적으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몸도 좀 아프고, 또 세상이 처음에 교수 되고 이럴 때는 치열하잖아요. 사회생활이. 교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 치열한, 열심히 벌어서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웃음) 그런 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순수한 작업에 임하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또 따뜻한 그런 작업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안유진** : 전시장 풍경은 어떠셨어요?

**홍기자** : 굉장히 좋았죠. 세련되고, 너무 좀 고답적인 애긴데... 색채도 다양하고 주로 화이트, 블루 이런 걸 더 많이 쓰셨지만. 빛에 관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좀 회화적이면서 인간적인 그런 걸 더 많이 풀어내신 것 같았어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 많은 작업 다 어떡하시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박물관에 많은 작품이 들어왔다는 걸 보니 참 기쁘네요. 굉장히.

## 05

### 성신난우회, 성신난원회

**이보나** : 서양화와 동문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975년부터 시작한 난우회. 선생님께서 초창기 회장님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1984년부터 시작된 난원회 등 그룹들을 결성하셔서 동문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기자** : 우리 동문전은 어떤 사명감이 있었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에서도 인정했어요. 나는 참 많이 들었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시면 하는 소리가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많이 가르쳐.”, “굉장히 많이 그리네, 대단하다.”, “서울대학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데, 성신여대 굉장히 실력 있는 학교구나.”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 선생님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기네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많아. 대단하네!” 그 정도로 좀 상당히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걸 명맥을 쫓아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물론 좋은 선생님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저희 집에 아직도 두꺼운 팜플렛이 와요. 1년에 한 번씩 졸업작품전 하면 저희 집에 꼭 오거든요. 오는데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좋고 어떤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조금 알죠.

**이보나** : 혹시 난우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홍기자** : 난우회? 기억도 안 난다. 어차피 동문이니까. 동문전을 해야 하니까 시작된 것이겠죠? 당연히. 그거 물어보는 게 너무 원초적인 것 같은데. (웃음)

**이보나** : 궁금해서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홍기자** : 미술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게 궁금하지만, 미술대학 나온 사람이 동문전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물어본다는 게 나는….

**안유진** : 그전에는 (별다른) 명칭 없이 계속 활동을 지속하다가, 75년도부터는 ‘난우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신 건가요?

**홍기자** : 왜냐하면 내가 71년도에 졸업했는데 졸업하자마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너무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75년도부터 만들었대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이보나** : 궁금해서요. 그룹전 하실 때마다 도록을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연혁이 나와 있더라고요. 1975년이 첫 시작이더라고요.

**홍기자** : 아, 그래요? 그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린 거겠죠. (웃음) 졸업하자마자 못하고 75년도면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했나 보다.

**안유진** : 그때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하신 건가요?

**홍기자** : 그럴것지요, 당연히? 뭐 미술대학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만들어야지 하고 했겠죠. 어디서 했고 이런 건 다 기억나요. 그런데 그거를 ‘왜 만들었냐’, ‘무슨 인연으로 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건 좀 말하기가… 당연히 우리는 예술가니까. 졸업하자마자 만들면 좋겠지만 위에 대가 없잖아. 그걸 이어준 선배가 없어요. 저희가 1회나(1회 졸업생이나) 다름없었어요. 1회, 2회는 조금 과도기라 그럴까? 그런 거였고. 3회부터가 본격적인 그런 거였거

든요. 그랬기 때문에 3회 졸업생들이 졸업하면 71년도고 75년도면 팀이 있네. 아닐 텐데 75년도가.

##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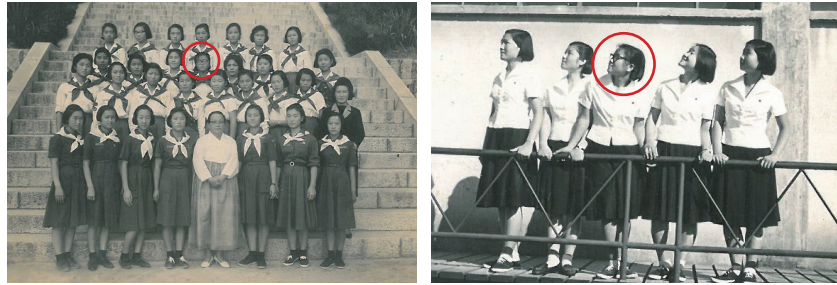
### 성신여자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보나** : 그렇군요, 도록에는 75년도부터라고 되어 있길래 연도를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홍기자** :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 미안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때 그럴 때라. 그래도요 저는 애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다녔다니깐요, 글썄. 그리고 대학원 때는요, 이렇게 손을 닦으면 교수가 와요. 나한테 이제 하대를 못 하셔. “홍선생, 빨리 집에 가. 남편이 기다리잖아.” (웃음) 그랬던 생각이 나요.

**홍기자** : 이숙중 학원장님이 남편의 아주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짧아가지고 조카였어요. 우리 남편이. 그런데 희한하게 조기홍 총장님은 우리 엄마의 은사였어요. 진명여고. 우리 엄마의 은사였는데 우리 엄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졸업하고서. 지금은 대학을 다 나와야 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여고가 교사 자격증 따는 것까지 다 가르쳤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서대문에 있는 금화초등학교라는 (학교의) 교사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는 은사님 중에 가장 이빠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대요.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공군. 근데 대전에 비행기 뜨고 내리는 ‘항공병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사령관으로 계셨는데 서울 공군 본부로 (아버지가) 오셨어요. 사령관으로 오시는데 애들을 옮겨야 되잖아요. 딸이 다섯이니까 막내아들 하나하고. 그래서 이화여고로 다 서류를 넣었는데 창덕여고 교장이었어요. 조기홍 총장님이. “무슨 소리냐 우리 학교로 와야지.” (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꾀발이 있었을 때니까. “안돼.”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들이 다 창덕(여고)으로 간 거야.

나하고 바로 위에 언니는 왜 성신을 오게 됐냐. 심(웅현) 이사장님<sup>4)</sup>이라고 아시죠. 1대 이사장님. 그다음에 2대 이사장님은 그 아드님(심규형)<sup>5)</sup>이셨어요. 그 두 분이 다 우리 아버지가 사령관일 때, 바로 밑에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밑에 직속 보좌관? 그런 분이셨어요. 이사장님이. 그랬던 인연이 있어서, “성신에 와야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성신 간 거야. 성신여중고하고 아무 인연(없었어요).



▲ 성신여자중학교(원), 성신여자고등학교(오) 시절, 홍기자 제공

이숙중 학원장님하고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지. 근데 그렇게 성신을 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학원장님하고 또 이렇게 남편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게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라.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학원장님 귀에다 대고 ‘인연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여기 전임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도 모르셔 그거. 살아계셨어도 모르실 거야.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내가 어깨 주물러드렸어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말 할 줄을 몰라 내가. 그냥 ‘난 내 힘으로 가면 된다.’ 이거였지. (학원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깨) 주물러드렸던 생각은 나요. 그냥 성신여대 제자로서 주물러드렸죠. 그때는 뭐 결혼해서 물론 저거(강사) 할 때지만은. 그렇게까지, 그 얘기가 지 나는...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는. 남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얘기를 해야지.” 그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 6~7대(1965.05.05. ~ 1973.03.25.), 12~13대(1985.01.29. ~ 1986.07.20.)  
성신학원 이사장

5) 14~16대(1986.08.01. ~ 1992.01.20.) 성신학원 이사장

## 07

###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홍기자** : 성신을 열심히 사랑하고 부르짖고... 정말 유관순 언니처럼 (웃음) ‘성신’ 그러면 잘 되기를 애타게 부르짖고 정말 그러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도 성신이 발전하려면 발전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해서 세계화로 나가려면 사실은 이 시대에는 남녀공학이 돼야 되지 않나. 여대라는 카테고리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또 여대라는 장점도 있죠. 굉장히 장점도 있는데 세계화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남녀공학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도 남녀공학을 하면서 남자에 대한 갭(Gap)과 여자에 대한 갭이 부딪치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런 거를 옛날 그 시절에는 여대가 통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한 십여 년 전에 ‘남녀공학 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때 세종대학 막 데모할 때예요. 총동창회 이런 데서 조금 반대를 했었나 본데 난 너무 속상했어요.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는데 글썄요. 지금 남녀공학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앓아 있겠죠. 또 나쁜 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그래도 세계화되려면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여기 이 성신관에 오니까 중학교 때 열심히 여기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생각이 나요. 1층이 도서관이었거든요. 여기 중앙홀. 거기가 도서관이었어요. 그러면 가방 싸매고서 도서관 내려가. 집이 저 아래야. 그러니까 집에 금방 가봐야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도서관에 들어가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하고 집에 갔어요. 참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굉장히 멋있어졌잖아요. 건물이. 참 감회가 무량하긴 하죠. 성신이 하... 어떻게 세계화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보나** :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구술채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 성신여자대학교 구술기록집

배달래·이미경·안수지 | 홍기자

#### 만든 사람들

총괄 : 임상빈

기획 : 조운정

구술 : 홍기자, 배달래, 이미경, 안수지

진행 : 이보나, 안유진

기록 : 이보나, 장하영, 조희영

편집 : 조운정, 이보나

디자인 : ㈜정디자인커뮤니케이션

촬영 및 영상편집 : Worthstudio

발행인 : 이성근

발행일 : 2025년 2월

발행처 :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el : 02-920-7715

Fax : 02-920-2110

Web : <https://archive.sungshin.ac.kr>

<http://museum.sungshin.ac.kr>

SNS : @ss\_museum

ISBN : 979-11-979267-6-1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